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적극행정을 더 가깝게!
코로나19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로 위기 극복!

2020년
5월 2주차

내고장알리미(www.lais.go.kr) > 알리미 > '적극행정' 코너



서울특별시

서울시 기술행정으로 20년 난제 '유량관망 사각지역'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안정적인 급수 운영을 위해 모든 배수지 유출부에
유량계 설치가 필요하나 지역의 급경사 등
환경적·기술적 제한으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없는 배수지 발생



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산식 개발,
배수지 유출유량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가칭 '배수지 유출유량 제공시스템'을 창안하였습니다.



유량계 설치 없이 배수지 유출유량 인프라 구축

- 약 46억 예산 절감 (56개소 10년간 유량계 설치 및 유지비용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함께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장소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기존 공무원의 관점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의 수요자 관점 필요



구는 성인지적 감수성 역량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가로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안심택배함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민 참여경험 마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네 현안 '주민 스스로' 이제 전자투표로 결정해요!!

다양한 행정 변화 속 주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 필요



구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전자투표로 시행하였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의 다양화, 투명화 및
투표의 편의성으로 주민 참여를 높여 주민 자치 실현



경기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 발생 우려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자의 가정 방문
- ▷ 맞이하는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내 안내 창구 마련
- ▷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락 최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충청남도 아산시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급식 중단으로
약 5개월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 상황



시는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1월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납품금액의 40%범위 내에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급식이 재개되면 납품액에서 분할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업체 파산 등 선금 회수 불가 대비 보증보험 징구)

경영 위기에 처한 급식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남도 서천군

폐업 위기 축산농가, 적극행정으로 다시 회생하였습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에 따라
A축사는 적법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림보호구역으로 적법화가 어렵고 적법화 추진 불가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축산시설로 해제한 사례가 없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군은 축산농가 탄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서,
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 대응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승인을 받아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업 영위를 지원

